

Abstract

The Biblical Concept of Peace

Joong-Sik Han

The Bible is a book about peace. There are nearly four hundred references to peace in its pages, either personal peace with God, or peace among men. The Bible opens with peace and closes with peace.

We must bear in mind that peace, in the Bible, is much more than the absence of war. It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but the presence of God in the midst of conflict, making all things new.

The word peace contains in it a desire for all of the goodness that God can give, a total well-being for mind and heart and body. Peace is a creative and curative force, and a peacemaker is a person who releases this creative force to change his world.

The desire for peace is universal; less so, the will to peace. It seems that the Christian is called to lend his influence toward the will of peace: Peace among men and peace of man with God.

질문(Question)에 관한 담화분석

김성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Question에 관한 담화 분석
4. 결론

1. 서론

의사소통의 기본 목적은 화행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목표의 성취,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화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행 가운데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고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질문 화행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질문의 핵심 기능은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는 질문의 화용적, 사회적 사용이 그 질문이 행해지는 상호 행위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Freed 1994). 구체적으로, 질문은 대화참여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적 수단이지만 이것이 질문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며, 질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질문 과정에서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지위나 관계, 대화의 목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섬세하고도 복잡한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화문은 독립적 맥락에서는 표층구조의 의미만을 표출하지만 언어상황에 따라서는 표층구조상 동일한 발화문도 언어적, 환경적 맥락

* 본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에 의해서 가변성을 지니게 된다. 가령, Athanasiadou (1991)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상황에서 행해지는 질문의 기능을 의미 및 화용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상황에서의 질문들은 친밀도, 사회적 관계, 권위등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계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형태와, 의미 또는 기능 사이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발견되는 언어형태의 빈도 차이는 의미의 파악에서 화자의 의도만을 강조하고, 언어형태와 의미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함축했던 화행 이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한 예가 대화분석이다. 언어의 행위성 강조, 대화의 연속구조(sequence structure) 분석, 맥락의 재귀성(reflexivity) 인식 등과 함께 대화분석의 특성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 상황 사이의 비교 분석이다 (Levinson 1992) (이원표, 1998. 한보청문회에서 질문 분석: 제도상황과 화자의 태도 표현. 사회언어학 제6권1호, 1-2).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어, 영어 및 일본어에 나타난 몇 가지 speech event를 question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speech event는 일반적 대화, 연극의 대사, 소설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 discourse type(situation)에 따라 어떻게 question의 sequence와 기능 즉, offer, query, clarification이 적용되어 지는가를 분석하여 일정한 pattern을 발견하려 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흔히 오용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politeness와 question을 연관시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여 본다.

2. 이론적 배경

언어사용에 관한 현재까지의 주장에서 대부분의 통사 이론은 철저한 재고가 필요하다. 사실 담화 분석에의 매력이 많아지는 것은 언어학의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데서 생기고 있다. 물론, Saussure, Bloomfield, Chomsky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확립한 설명과 엄격함(rigour)의 기준에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의 긴밀성의 관점(coherent view)은 통사론을 포함해서 담화 현상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언어의 이론적 틀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변형문법에도 내부 모순의 짝이 있었다 왜냐하면, '문맥 c에서 a를 b로 고쳐 쓰시오'와 같은 문맥-감지 규칙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 규칙의 방아쇠로서 작용하는 문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일까? 또 그것은 문장 속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

다면 선행하는 담화 속에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수행되는 행위에 있는 것일까? 나아가 그것은 사회적 문맥 속에 있는 것일까? 이들 방아쇠가 되는 문맥에는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떠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Michael Stubbs, 송영주 역, 1993. 담화분석-자연언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23-24).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담화 분석은 더욱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지하여져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담화 분석과 사회언어학 이론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한다. 일상 생활의 배경에서 즉, 학교, 거리, 시장, 식당, 병원, 법원, 가정, 술집에서 실제 발생하는 수많은 대화를 분석 정리하는데 담화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분석이 탄생된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경제 수준과의 상호 관계, 남녀노소 차이, 교실 수업과 일반대화의 차이, 문화에 따른 민족지학적 입장에서의 분석 등이 가능하다. 어느 장르에서든지 대화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기능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speech act에서 speech event에 이르기까지 언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의 범위를 정의하여야만 한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와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며 고개만 끄떡이거나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적어도 두 가지 일반적 기능 즉, 외부의 세계를 지시하고 명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지시적-인식적 기능)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정서적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에서는 이보다 세분화 된 Jakobson의 의견을 따른 Hymes (1962)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그는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 7가지의 '대략적유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표현적/감정적 (2)행위지시적/의지적/설득적 (3)시적 (4)접촉적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5)메타언어적(의미의 초점) (6)지시적 (7)문맥적/장면적 그리고 그는 이 7가지 기능이 화자가 발화 상황과 요인에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와 상황과의 적격성은 다음 7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1) 송신자 (2) 수신자 (3)메세지의 형태 (4) 채널(음성언어/문자언어) (5) 코드(방언/언어/변말(jargon)) (6) 화제 (7) 환경 또는 상황.

이러한 모든 요소 속에서 어떤 회화 속의 발화교환을 논함으로 담화 단위의 통합적 연쇄 관계를 논하게 된다. 발화교환의 정의는 Sinclair and Coulthard (1975)의 연구에 입각하여 발화교환은 적어도 한사람의 화자로부터의 개시발화(I)와 다른 화자로부터의 응답(R)으로 이루어지는 최소의 발화 상호작용의 단위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발화교환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IR 이 되는 셈이다. 같은 발화교환의 가장 분명한 예는 아마 QA라는 구조를 갖는 질문-응답의 짝(pair)이 될 것이다.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법 구조에 의해서

그보다 상위의 언어 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언어 형식' 이라는 Bloomfield (1933)의 문장에 관한 유명한 정의보다는 '... 의문문은 그 자체, 발화로서의 응답문이 작용하는 틀의 일부이다'라는 Fries (1952)의 정의를 적용한다. 즉, '화자의 태도 및 감정 개입,' 또는 '화자의 입장'과 '청자의 입장'에 따라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Schffrin (1994)은 "Y'want a piece of candy?"라는 question에서 question-answer sequence를 question, request, offer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speech act를 분석 단위로 하여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까지 하였다. 하나의 발화인 Y'want a piece of candy?가 question, request, offer의 speech act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speech act의 하나인 question을 Hymes (1972)의 SPEAKING grid 이론을 적용하여 offer, query, clarification등의 해석이 가능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분석 방법을 택하여야만 한다. interview의 예를 든 Briggs (1986. 104)가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발화도 해석되기 이전에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민족지학적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민족지학과 사회학 연구에 있어 유일한 통합된 구조라고 한다. Hymes는 사회에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저를 이루는 아이디어의 체계를 적용하는 문화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민족지학적 입장에서는 context가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민족지학자들은 민족지학적 연구의 전통적 방법으로 즉, 참여자의 관찰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민족지학적 측면에서 Hymes (1972)는 다음과 같은 소위 SPEAKING이라는 grid를 만들어 의사소통의 가능한 요소들을 분석하려한다.

- S (setting: 물리적환경, scene: 심리적정의)
- P (participants. 화자/송신자/전달자, 청자/수신자/청취자/수신인)
- E (ends: 목적, 결과)
- A (act sequence. 메시지 형식과 내용)
- K (key: 어조, 방법)
- I (instrumentalities: 경로(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 N (norms of interaction and interpretation: 해석 규칙, 상호작용 규칙)
- G (genre: 유형)

이런 면에서 민족지학적 의사소통의 분석이 가장 통합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politeness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언어학에서 취급하는 politeness와 화용론에서 의미하는 politeness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야만 한다. Jenny Thomas는 화용론에서 말하는 politeness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We cannot assess politeness reliability out of context. it is not the linguistic form alone renders the speech act polite or impolite, but the linguistic form + the context of utterance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hearer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politeness란 real world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에서 말하는 politeness임은 자명하다. 즉, politeness란 화자나 청자의 주관보다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적인 언어 선택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polite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impolite 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polite한 경우가 있다. 화용론의 범위는 의미론이나 사회언어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 화자와 청자의 context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polite하나 impolite하나 하는 문제는 언어적 형식, 발화의 문맥 그리고 participants인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가 혼합되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3. Question에 관한 담화분석

몇 가지 speech events를 설정하여 그 곳에 나타나는 speech act의 하나인 question을 politeness와 연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Hymes (1972)는 SPEAKING이라는 grid를 이용하여 민족지학적 입장에서 담화를 분석하여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7개의 예문은 Hymes의 SPEAKING에서 I 즉, 수단(instrumentalities)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모두를 사용하였다. 일반대화인 예1)은 실제 발생하였던 담화를 녹음 분석한 것이며 예2)는 Jenny Thomas (1995)의 *learning in Interaction :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156)에 나오는 예문을 참고로 하여 대화를 각색한 것이다. 드라마 예3), 예4)와 소설 예5), 예6), 예7)은 본문의 대사와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1 일반 대화에 나타난 Question

3.1.1 한국어 대화

조금은 남루하게 차려 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두 명의 여자 노인네들이 집안 행사가 있어 시골에 내려가려는 듯 시외버스를 기다린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일행들보다 먼저 도착한 두 명이 대합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예1)

노인 1: (1)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

노인 2: (2) = 사람 사는데 뭔지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서

→ 노인 1: (3) 자식들은 잘 있지요?

노인 2: (4) 그럼 근디 그놈의 아엠에프(IMF) 때문에 . 그런디 요즈음 쪼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z

→ 노인 1: (5) 아들 잘 있지요? =

→ 노인 1: (6) = 착하지요?

z

노인 2: (7) 착하지

→ 노인 1: (8) 엄마한테 힘들다는 말도 않는다며?

노인 2: (9)

우리는 (3),(5),(6),(7)에서 통사론과 억양의 높임(rising intonation)으로 인해 모두가 ques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ontext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볼 때 각기 다른 기능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3)에서 자식들이 있냐고 물어 보는 것은 아무런 제약과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간만에 만난 두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자식들의 문제임으로 첫 질문을 자식의 안부로 한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후 놀라는 표정과 손을 맞잡는 speech act가 끝난 후 오랜만이라는 인사 후의 자식의 안부 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3)은 발화 교환의 가장 분명한 예인 QA라는 구조를 갖는 질문-응답의 짝(pair)이 될 것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통사론적으로 yes-no 의문문의 한 예일 뿐이다. (5)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식들 중 아들에 관해 질문을 한다. 아마 노인1은 노인2의 아들을 전부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선행 발화의 질문인 (3)의 “자식들은 잘 있지요?”에 대한 대답으로 이미 (4)의 그럼 이란 답을 유도하

여 내었으므로 (5)만 독립되어져 있는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5)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들도 역시 잘 있다고 믿는 확정성(certainty)을 나타내고 있는 발화이다. 즉, 긍정(yes)이나 부정(no)의 answer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들도 역시 잘 지내고 있을 것을 믿는 확정성의 표현인 것이다. 노인2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노인1의 확정성의 질문이라 간주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 Berry (1981)가 말한 극이 정해진 명제의 틀(propositional frame)을 형성한 것이다. (6)의 “착하지요”는 친구(두 노인은 친구 사이인 것 같다) 아들이 부모 속 썩히지 않고 잘 지내는지에 대한 question도 될 수 있으며 또한 노인1이 그 동안 관찰 해온 결과 노인2의 아들이 착하였으므로 당연히 착하게 지내는 것으로 확정하는 확정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2가 “착하지”라고 대답을 해줌으로써 확정성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아들에 대한 효도를 묻는 질문에 더욱 가깝게 접근한다. (3)과 같이 통사론적으로 yes-no의 question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8)의 “엄마한테 힘들다는 말도 않는다며?”는 통사론과 억양의 높임으로 접근하여 볼 때 question 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후의 speech act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안부, 자식의 안부 중 아엠에프(IMF)라는 말이 등장하여 이들 자식들의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만은 아님을 암시한다. 어려운 중에서도 엄마한테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친구 자식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노인2는 침묵(silence)으로 노인1의 질문에 대답한다. 착하여서 아엠에프 시대에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므로 친구의 아들이 틀림없이 착하다는 확정성(certainty)을 보여준다.

예1)에서 우리는 question의 형식에서 단순한 question 뿐만 아니라 certainty를 포함하는 question의 speech act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context를 연결시켜 연구하여 볼 때 특별한 politeness를 유추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뒤따른다.

3.1.2 영어대화

A married couple on their honeymoon are trying to decide where to go for dinner and what to order to eat

예2)

She: (1) I want you to be very happy, dear

He (2) I would be most happy to take you to the best seafood restaurant in town

- He: (3) Here we are, darling Here's the menu
 → She: (4)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 He (5) You choose
 She: (6) Well, I'd like the lobster, but it's a bit expensive
 He. (7) Don't worry about the cost. Tonight is a very special occasion
 She: (8) Okay, I'll have the lobster How about you?
 Why don't you have the lobster, too?
 He: (9) I'd love to, but I'm allergic to lobster.
 I'll have the cod.
 She. (10) Okay, I'll have the cod, too
 He. (11) No, no You must have the lobster
 She: (12) Well, all right. If you insist.

(5)의 “You choose”의 speech act를 이용하여 우선 politeness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예문의 (5)에서 남편은 직접 명령문을 사용하여 부인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의 발화는 question을 사용한 완벽한 politeness를 나타내고 있다. 남편은 직접 명령문을 사용하여 형식은 question을 취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Will you choose?”나 “Would you choose?”라는 공손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어, 존대법 등을 사용하지 않고 polite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context를 살펴보고 또한 Leech (1983: 107-8)가 언급한 화행의 원칙에서 화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고(costly to the speaker) 청자에게 이익이 되기(beneficial to the hearer) 때문이다. 신혼여행 기간 중 식당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비록 정중한 통사론적 표현 방법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부에게 메뉴 선택권을 먼저 부여함으로써 politeness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부부가 된 이들은 청자에게 이익을 주며 좀 더 서로의 신뢰성의 유지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speech act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사론적으로 해석한다면 명령문으로써 신랑이 가부장적 입장에서 신부에게 음식을 선택하라는 명령의 어색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비록 question의 형식을 취하지도 않고 억양의 높임도 없지만 question 될 수 있다는 것이다.

question의 발화를 통하여 이 곳에서 나타나는 speech act를 살펴본다. 이 speech event에 나오는 S와 H는 현재 신혼 여행 중에 있으며 상당히 행복한 분위기에 있다. (4)에서 신부는 먼저 신랑에게 “What would you like to order?”라고 물어 보며 상당히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를 묻는 query 보다는 신랑에 대한 예우로 먼저 선

택권을 주려는 offer의 speech act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랑은 (5)에서 "You choose."라고 대답한다. (5)의 발화 하나만 생각한다면 자칫 통명스러운 대답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politeness의 측면에서 관찰하였듯이 전후 context로 살펴 볼 때 (5)의 발화는 (4)의 offer에 대한 정중한 대답인 동시에 신부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며 request하는 speech act로 분석되어진다. 이 request에 대답으로 신부는 (6)에서 "Well, I'd like the lobster....."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Well,의 간단한 발화이다. 신랑이 선택의 결정권을 신부에게 양보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You choose."에 대한 확인 발화가 될 수도 있다. 즉, "Really?"라는 뜻으로 신랑의 질문을 되물음으로써 clarification하려는 것이다.

3.2 드라마에 나타난 Question

321 한국어 드라마

임규作 문고현 연출의 *탈꼴*이라는 연극이 있다. 공원에 모여 소일하는 주인공들(영춘노인, 허풍노인, 슈퍼맨노인, 새몰이노인)은 늘 같은 장소에서 연극을 하며 무료함을 달랜다. 5장에서 어느날 왕목사(본명은 왕덕수)가 등장한다. 슈퍼맨노인은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며 왕목사를 반기지만 왕목사는 횡설수설한다.

예3)

허풍: (1) 저런 저, 저거 아주 상것이네

→ 영춘: (2) . 새몰이 니 좋은 말했다 말 나온김에 논밭으로 돌아가지 안갔니?

→ 새몰이: (3) (지팡이로 허공을 휘저으며) 고향으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소 물 속에 잠긴 내 고향으로 휘이! (정색을 하며) 위편 놈인지는 몰라도 내 고향 논밭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편안히 눈 못 감을 것이여 (지팡이를 허공에 돌린다). 너무 오래 놔두면 토갱이 밥으로 남아나지 않으니께 서둘러 콩털러 가야겠소 위이 휘이! (퇴장)

왕목사 (4)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허풍 (5) 그래도 그만하면 건강한거야 저 정신에 토룡이 땅강아지를 잊지 않고 있으니.

→ 영춘: (6) 내 실수를 했다. 그런건 묻는 거이 아닌데 말이다.

→ 왕목사: (7) 이해하실 겁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해도 그것

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은 분명 참 말씀
이십니다

영춘: (8) 무슨 말이야?

허풍: (9) 참 말

→ 수퍼맨: (10) 그보다 왕목사, 자꾸 물어 미안한데 정말 영생이 있는 거요?

허풍: (11) 아, 그 소리 그만하고 하던 연설이나 어서 해

→ 왕목사: (12) 그러세요 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speaker와 hearer가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의 participants가 참여하는 speech event이다. (2)에서 "...새물이 니 좋은 말했다. 말 나온 김에 논밭으로 돌아가지 안갔니?" 영춘이는 힘들고 살맛 나지 않는 생활에 대한 불평으로 그의 동료 새물이를 향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 발화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를 기대하는 question의 발화는 아니다. 다만 독백하듯이 그의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내던지는 말이다. context를 유심히 살펴볼 때 이 발화는 결코 offer, request, query, clarification 등의 speech act를 기대하고 한 발화는 결코 아니다. 이들의 발화 setting이나 scene은 participants를 의식하거나 주목하고 하는 환경이 아니다. 마치 Samuel Beckett의 부조리연극 *Waiting for Godot*의 주인공들 Estragon과 Vladimir의 대화처럼 허공을 맴도는 발화일 뿐이다. 이 공허한 대화를 통하여 인간의 소외를 나타내고자한 작품이다. 그러나 의외로 새물이는 (3)에서 (지팡이로 허공을 휘저으며) "고향으로 갈 날도 얼마 안남았소..."하며 대꾸를 한다. 영춘이의 발화가 새물이의 대답을 유도하려는 question이나 정보를 유추하려는 request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 (6)에서 영춘이는 "내 실수를 했다. 그런건 묻는 거야 아닌데이 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발화의 ends를 명시한다. 그러나 결국 새물이의 clarification 반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영춘이는 본인이 의도한 ends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S와 H의 입장이 빗나간 발화의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영춘 (2)의 발화는 dialogue 보다는 monologue로 해석함으로 speech act가 발생될 수 없는 발화이다.

사이비 목사 왕목사는 (7)에서 "이해하실 겁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려한다.(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에서 왕목사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려고 이 발화를 한 것이 아니다. 왕목사는 이 무리중에 어설픈 지식인 흉내를 내고 있는 사이비 목사이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확실하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말을 연장기키는 경우가 있

다. 한국어의 "에-나 영어의 "Well-"이나 "You know-"와 같이 의미 없는 발화가 그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비 왕목사는 확신감 없는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잠시 시간을 끌며 다음 발화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다음의 발화를 연결시킬 때 우리는 흔히 "왜, 거시기 있지 않습니까?"하며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영춘과 새몰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자기 자신의 유식을 과시하려는 의도이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야하는 것을 clarification하려는 의도에서 question의 형식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다. clarification의 speech act는 S와 H 사이에 발생하여야하나 S와 H의 역할을 동시에 하나로 통합한 발화이다. 즉, 당연히 이 무식쟁이들이 모르리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모른다는 그들의 no라는 대답까지 유추하여 발화한 것이다. 왼손과 오른 손을 바꾸어 말함으로써 본인도 그들과 같은 무식쟁이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10)에서 수퍼맨은 "그보다 왕목사, 자꾸 물어 미안한데 정말 영생이 있는거요?" 이 발화는 왕목사를 사이비 목사로 생각하고 또한 그를 떠보려는 수퍼맨이 한 질문이다. 왕목사는 당황하여 (12)에서 "그러세요 내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라고 대답함으로써 답변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과 사이비 목사로서의 신분 노출로부터 탈출하려한다. (10)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기대하는 question이 아니다. 다만 수퍼맨이 왕목사의 사이비성과 무능력을 확인하려는 확인성(certainty)의 question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담화를 통하여 politeness, face, threatening 등의 speech act를 기대할 수는 없다.

3.2.2 영어 드라마

미국의 연극을 오늘날의 현대 연극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극작가 중 Arthur Miller는 *Death of A Salesman*에서 소시민의 소외감을 Willy Loman이라는 가장을 통하여 나타낸다. Linda는 그의 아내이다. Act one의 첫 장면에서부터 생활고로 인한 부부간의 짜증 섞인 대사가 나온다

예4)

Linda, hearing Willy outside the bedroom, calls with some trepidation:

(1) Willy!

→ Willy (2) It's all right. I came back.

Linda (3) Why? What happened? *Slight pause* Did something happen, Willy?

Willy: (4) No, nothing happened.

→ Linda (5) You didn't smash the car, did you?

- Willy: (6) with casual irritation. I said nothing happened. Didn't you hear me?
- Linda (7) Don't you feel well?
- Willy: (8) I'm tired to the death The flute has faded away He sits on the bed beside her, a little numb I couldn't make it. I just couldn't make it, Linda.
- Linda, very carefully, delicately
- (9) Where were you all day? You look terrible
- Willy: (10) I got as far as a little above Yonkers I just stopped for a cup of coffee Maybe it was the coffee
- Linda (11) What?
- Willy, *after a pause* (12) I suddenly couldn't drive any more The car kept going off onto the shoulder, y'know?

60이 넘는 외판원 남편 Willy가 퇴근을 하여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다. 첫 장면부터 우리는 어떤 불안정한 setting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구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남편은 퇴근하여 부인에게 던지는 첫 인사로 (2) *It's all right. I came back.*라고 한다. 안부를 묻기보다는 별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생활 및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연극도 앞서 본 한국연극 *탈춤*에 나타난 것처럼 현대인의 소외감을 그리려는 작품이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인사에 부인 Linda도 (3)에서 *Why?, What happened?, Did something happen, Willy?*라는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다. 첫 번째 질문 *Why?*는 어떤 *information*을 얻기 위한 *query*나 *offer*, *request*, *clarification* 등의 *speech act*를 얻기 위한 발화가 아니라 남편의 지친 모습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인기척 없이 돌아온 남편을 (1)에서 확인하였을 때 남편은 (2)의 불안한 대답을 한다 이에 대한 부인의 발화는 영어의 "Oh!"나 한국어의 "아니 이런"처럼 놀라움이나 감탄의 *exclamation*으로 분석함이 어울릴 것 같다 두 번째 질문 *What happened?*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늙은 외판원인 남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기원의 분석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외판원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는 남편의 무사함을 확인성의 *question*이다. 이어지는 *Slight pause*는 *Why?*와 *What happened?*에 대한 Linda의 성찰로써 자신의 발화에 대한 재확인 발화로서 앞선 확인성(*certainty*)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question, Did something happen, Willy?*는 두 발화의 진위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information*을 구하기 위한 전형적인 *query*형식의 *question*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가 발화(5), (9)에 나타난다. 한편 (7)의 question형태는 부인 Linda가 남편 Willy에게 몸이 불편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 보인다고 확인하는 question이다.

3.3 소설에 나타난 Question

3.3.1 한국어 소설

한국의 단편소설을 개척한 최초의 작가 金東仁의 감자라는 작품이 있다.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 여주인공 복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게으름뱅이인 남편과의 대화의 한 장면이다.

예5)

복녀. (1) 뱃섬 좀 치워 달라우요

남편: (2) 남 줄음 오는데, 남자 치우시관

→ 복녀 (3) 내가 치우나요

남편: (4) 이십 년이나 밥 쳐먹구 그걸 못 치워

복녀 (5) 에이구 콧 죽구나 말디

남편 (6) 이년 필!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 일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리어 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 곳에서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러치요, 부업으로는 도둑질과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 있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매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복녀는 뱃섬을 좀 치워 달랬다가 핀잔을 듣는다. 실망한 복녀는 (3)에서 “내가 치우나요?”라며 역정을 낸다. 이것은 “그러면 내가 치울까요?”라는 해석이 가능한 question이 아니다. 남편에게 information을 구하기 위한 query도 아니고 offer나 request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런 일까지 여자가 하여야만 하는데 대한 불만의 토로이다. 생활고에 시달린 복녀가 악이 받쳐 내뱉는 투정일 뿐이다. 남편 잘못 만난 자기의 신세타령이며 identity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생활에 염증을 느낀 복녀가 identity를 회복하려고 발악하는 확인성(certainty)의 speech act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이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소설에 金裕貞의 *소나기*가 있다. 남편 춘호는 그의 아내에게 서울로 가서 살 자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6)

춘호 (1)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섯도 신고 해서 췌 마
음에 썩 들어야 ”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삼기다가 옆에서 썩썩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안해는 이미 꿈아져 잠이 깊었다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안해의 머리칼을 뒤
로 쓰담아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 안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 해입히고 고생만 짓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뻑하
였다 그는 확실스러운 팔로 안해의 허리를 꼭 껴 안아 자기의 앞으로 바투히
끌어 당겼다

→ 아내 (2)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1)에서 남편 춘호는 어린 아내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하여 주는 사이 아내는 잠들어 버린다. 그런 아내에게 춘호는 (2)에서 잠든 아내에게 “자빠져 잔담”하면서 이런 때 자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같은 혼자 말을 한다.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혼자만의 말처럼 느껴지는 발화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 발화가 의미론적으로는 상당히 거칠게 해석이 될지 모르나 화행론의 분석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고생만 한 아내가 사랑스러워 일부러 반대로 거칠게 내뱉은 발화이다. context를 고려하여 볼 때 이 발화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담긴 politeness가 들어 있는 표현인 것이다.

3.3.3 일본어 소설

예7)

ののむらの妹は立ち上かと思うと、みむの前に走ってきて、
じつにりっぱに宙がえりをうった。

その意外とあざやかさにはみな驚いて、大拍手喝采だった。

業は一時にりゆういんがった思いでなきたいほど、うれしく思った。

ののむらは驚いて言った。

→ ののむら: (1) “おてんば、いつそんなものをらのだ。
みな笑った。”

→ 妹 (2) いつだか知らないわと。
とわざと亂暴に言って、その表情を僕はにまらにくかわいく思った。

노노무라의 여동생은 일어섰는가 했더니 모두의 앞으로 뛰어와 정말로 멋지게 재주넘기를 했다.

그 뜻밖의 행동과 훌륭한 솜씨에 모두 놀라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는 순간 가슴 속이 후련해졌고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뻐다.

노노무라는 놀라서 물었다.

→ (1) 말광량이야, 언제 그런걸 다 배웠니?

모두 웃었다

→ (2) 언젠지 몰라.

라고 일부러 거칠게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이 견딜 수 없이 귀여웠다.

노무라는 그의 여동생 나쓰코를 (1)에서 ‘말광량’이라고 부르며 귀여움과 친밀감을 표시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재주를 보여준 여동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이 (1)의 발화 하나만을 따로 분석한다면 버릇없는 여동생에 대한 불쾌함의 표현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전, 후의 context를 고려하여 볼 때 이 곳에서의 발화 (1)의 ‘말광량’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빠의 여동생에 대한 따듯한 감정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social linguistics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pragmatics의 politeness를 차용하여 분석 가능한 것이다. 즉, 노무라는 여동생에게 polite하게 오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에서 언제 그런걸 다 배웠니(いつそんなものをならったのだ)라고 물은 것은 언제 동생이 그런 재주를 배웠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런 것을 배워 발표하는 여동생에 대한 감탄(exclamation)이라 할 수 있다. 감탄을 함으로써 여동생의 재간을 확인하고 clarification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어진다. 한편 여동생은 (2)에서 “언젠지 몰라”라고 대답하며 information을 요구한 어떤 query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clarification에 대한 응답을 하여 주고 있다. 한편, 오빠가 동생을 말광량이라고 호칭한 것은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표현이므로 이 발화는 politeness를 동반한 speech act로 해석 가능하다

4. 결론

Situation, speech event, speech act 등의 담화 분석 단위에서 speech act의 단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question의 발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speech act를 몇 가지 genre를 빌려 살펴보았다. question, request, offer, clarification 등의 일반적인 분석이외에도 확인성(certainty)을 첨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특별히 화용론의 politeness를 차용하여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7개의 예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의 발화 중 certainty가 5개(약 30%)를 차지한다. 여러 가지 genre에 나타난 예문들은 어느 한 특정한 function을 유도하려 의도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거의 임의대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이나 우연히 자연스러운 대화를 녹취하거나 한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한 통계에서 우리는 확정성(certainty)의 speech act가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question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query, offer, request, clarification, exclamation 이외에 확정성(certainty)의 한 항목을 첨부하여 어떤 pattern과 연결시켜보려는 시도를 하여 보았다. 아직은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여러 개념들로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담화 분석의 범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표1>

예	Type of Question	Politeness 적용 유무
1	(3) QA 구조	X
	(5) Certainty	X
	(7) Certainty	○
2	(4) offer	X
	(5) request	○
3	(2) monologue	X
	(7) clarification	X
	(10) certainty	X
4	(3) exclamation, certainty query	X
	(5), (9) query	X
	(7) certainty	X
5	(3) certainty	X
6	(2) monologue	○
7	(2) exclamation & clarification	○

본 논문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7개의 예에서 나타난 분석이 과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S와 H 또한 해석자 모두의 만족을 주는 객관성을 제공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편 서론에서 말한 politeness와 question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도 자료의 부족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결국은 speech event 안에서 발생하는 context에 좌우되는 speech act이므로 S와 H 또한 해석자 모두 정확한 context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question이라는 저구석에 있는 speech act 하나만을 분석하여도 많은 해석이 가능할진대 담화분석이라는 거대한 분야에서는 사회의 과정에 언어학적 측면의 위상을 확립시키며 그와 동시에 언어의 상호작용이라는 통찰을 통하여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고 쉽게 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Athanasiadou, A.(1991). The Discourse Function of Questions *Pragmatics* 1:107-122.
-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ett, S.(1954). *Waiting for Godot*, New York : Random House.
- Freed, A.(1994). The Form and Function of Questions in Informal Dyadic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21:621-644.
- Hymes, D.(1972). Toward ethonographies of communication.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vents In P. Giglioli (ed), *Language and Social Context* Harmondsworth : Penguin
-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 Longman.
- Levinson, S(1992). Activity Types and Language In P. Drew and J. Heritage(eds.) *Talk at Wor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nard, S(1990). Pragmatics of discourse modality. A case of da and desu/masu forms in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15:551-582.
- Miller, A.(1969). *Death of a Salesman*, New York : A Viking Compass Book.
- Salkie, R.(1995). *Text and Discourse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Sanger, K(1998) *The Language of Fiction* :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Schiffman, D.(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UK & Cambridge USA : Blackwell.
- Searle, J(1969). *Speech Acts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bbs, M(1983). *Discourse Analysi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as, J.(1995) *Meaning in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London and New York : Longman.
- Toolan, M.(1998) *Language i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Stylistics*, London, New York, Sydney, Auckland · Arnold
- 교양국어편집위원회(1994), **大學國語**, 서울: 흥진출판사
- 김태자(1987). 담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저, 장남호 역주(1993) 사랑과 죽음 (愛と死), 서울: 시사일본어사.
-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이원표(1998) 한보청문회에서 의 질문 분석· 제도상황과 화자의 태도표현, 『사회언어학』 제6권 1호, 1-52, 한국사회언어학회.

Abstract

Discourse Analysis on Question

Kim Seong Ho

The basic purpose of communications is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 of conversations which is exchanging information and achieving goals through speech act. Among various speech acts, question activity is important and can be a matter of concern in these views. Question is a direct linguistic method that the participant of a conversation can get information which they want. But this is not a unique function of question. To achieve efficiently various function of questions, we should consider various facts following as the position and relation between the complicated participant's conversation and purpose of conversation. It means that we should spread our studying range from pragmatics to sociolinguistics.

I compare and analyze several speech events that were appeared in Korean, English and Japanese with question as the central figure. I also analyze adding certainty besides general analysis like question, request, offer and clarification. Especially, I try to connect by using politeness of Pragmatics.

The sphere of discourse analysis, which may be vague because it is not yet fixed rigidly, should be established. Since speech act has been under control of context in speech event, an effort to figure out accurate context for all the S, H and interpreter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여 백